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고령 친화 정책 계획이 국립 공공 보건 혁신상(NATIONAL PUBLIC HEALTH INNOVATION AWARD) 수상함 발표

수상으로 국내 첫 고령 친화주로서 뉴욕의 위치 강조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건강 예방, 스마트 성장을 합친 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국 공공 보건 협회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Public Health Institutes, NNPHI)가 뉴욕의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Health Across All Policies, HAAP)/고령 친화적 뉴욕 계획(Age-Friendly NY Initiative)에 2019년 공공 보건 혁신상(Public Health Innovation Award)을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상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틀에서 벗어난 해결책을 개발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 확장 가능한 아이디어, 협력 방법을 만든 단체에게 수여됩니다. 전국 공공 보건 협회 네트워크(NNPHI)는 뉴욕이 이 계획으로 보여준 강한 파트너십, 전략적 비전, 혁신적 접근 방식, 창의적 지원금 제공에 대해 표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상은 공공 보건과 고령층 뉴욕 주민을 위한 주정부의 대담한 공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모든 연령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듦으로써 건강 관련 필요사항을 해결하고 경제 번영 및 기회 평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전미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및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7년 뉴욕을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인 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가 전미 퇴직자 협회(AARP)의 살기 좋은 지역사회 원칙(Livable Communities Principles)을 정부 프로그램, 계획, 조달에 포함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에 고령 및 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원칙을 모든 주 기관 프로그램, 정책, 비용, 보고서에 적용하고 포함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모든 뉴욕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청사진인 뉴욕주 예방 어젠다(New York State Prevention Agenda)에 기반합니다.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의 비전은 뉴욕이 국내에서

가장 건강한 주가 되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 목표를 가지고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 건강 순위(America's Health Rankings)'에 따르면 뉴욕은 공공 보건 결과로 24위에 올랐으며 2018년에는 10위로 올라갔습니다.

건강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는 걸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경관, 다목적 소구역 설정, 믿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 가능한 공공 장소, 다양한 주택 옵션 등 스마트 성장 계획 원칙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또한 전반적 인구 건강을 개선하고 사회 건강 결정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신체 활동, 공공 안전, 건강한 식품 이용,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 소통, 공기 및 수질, 사회 경제적 평등 같은 예방 건강 테마를 사용합니다.

몇몇 주 기관은 이미 프로그램에 고령 친화적 원칙을 넣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카운티와 지역사회가 고령 친화지 인증을 받고 지역 수준에 맞게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시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은 7월에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포함하는 연방 4개년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끝나는 카운티 노령화 사무국 4개년 계획도 이러한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최근 애디론댁/캐츠킬 스마트 성장 보조금 프로그램(Adirondack/Catskills Smart Growth Grant Program)에 고령 친화 집중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고령층 뉴욕 주민이 두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뉴욕에서 우리는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고령자들에게 전례없이 헌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오래 살수록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 주로서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최고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 및 스마트 성장 계획에 매진하는 것을 인정받아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YS Department of Health)의 Howard Zuck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층 뉴욕 주민을 보살피고 그들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고 건강한 지역사회에 들어갈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공공 보건의 기본입니다. 최근 수상은 Cuomo 주지사의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Health Across All Policies)을 지키려는 주정부의 노력을 인정받고 국내 최초 고령 친화주로서 뉴욕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는 똑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계획 및 개발을 뉴욕주를 운영하는 방법의 중점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뉴욕주무부(New York Department of State)는 이러한 활동에 기여하여 전국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YS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전반적 인구 건강을 개선하고 성장하고 늙기에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복수 기관의 공동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뉴욕은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 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와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접근 방식을 통한 결합 의료 서비스, 예방 건강, 지역사회 설계, 사회 건강 결정요인 관리로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에게 긍정적 결과를 줄 것입니다."

뉴욕주 공공 보건 및 건강 계획 위원회(NYS 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의 Jo Boufford(의학박사)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공공 보건 및 건강 계획 위원회(NYS 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는 뉴욕을 모든 연령대가 가장 건강한 주로 만들기 위해 정책 및 사례에 몰두하는 뉴욕주의 노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기쁩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갈채를 보냅니다. 또한, 주 기관의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프로그램 및 국내 최초 고령 친화 주로서 주의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뉴욕주 예방 어젠다(NYS Prevention Agenda)와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의 시행을 감독하는 공공 단체가 되어 기쁩니다."

뉴욕 의학 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Medicine)의 Judith A. Salerno(의학박사, 이학석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의학 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Medicine)는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프로그램 및 고령 친화 계획(Age-Friendly initiatives) 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이자 뉴욕주의 고문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전국 공공 보건 협회 네트워크(NNPHI)는 주 전역에서 건강을 우선사항으로 만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웨스턴 및 센트럴 뉴욕 건강 재단(Health Foundation for Western and Central New York), 전미 퇴직자 협회(AARP)와의 협력으로 저희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만들어 전 연령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Beth Finkel 전미 퇴직자 협회(AARP) 뉴욕주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미 퇴직자 협회(AARP) 뉴욕은 Cuomo 주지사, 주 보건부(Health Department), 뉴욕 의학 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Medicine), 웨스턴 및 센트럴 뉴욕 건강 재단(Health Foundation for Western and Central New York)과 협력하여 고령 인구용 의료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법을 개발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뉴욕을 국내 최초로 전미 퇴직자 협회(AARP)-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고령 친화적 주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만들어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계획은 전 연령대의 뉴욕 주민의 삶에서 건강 중요성이 증가함을 인식하신 Cuomo 주지사님의 비전 및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웨스턴 및 센트럴 뉴욕 건강 재단(Health Foundation of Western and Central New York)의 Nora OBrien-Suric(박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및 센트럴 뉴욕 건강 재단(Health Foundation for Western & Central Ny)은 존경하는 파트너와 함께 수상하고 인정을 받아 영광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이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Health Across All Policies)' 계획을 개시하고 뉴욕을 국내 최초 고령 친화적 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을 때 건강 재단(Health Foundation)은 파트너십 기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주지사님의 지시와 재단의 주안점 사이에는 아동 및 고령층의 사회 건강 결정요인 관리에 대한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HAAP)/고령 친화적 뉴욕(Age-Friendly NY) 작업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는 상호작용하는 결정요인이 많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많은 결정요인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협력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전미 퇴직자 협회(AARP), 뉴욕 의학 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Medicine)와의 협력은 시스템 변화에 필요한 협력 유형을 나타냅니다. 이 상으로 저희의 파트너십을 인정해주신 전국 공공 보건 협회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Public Health Institutes)에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